

양극화 및 계층격차 인식에 대한 문화의 역할*

이윤경**

최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주관적 계층인식의 악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주관적 계층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면, 사회계층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양극화를 다루어왔지만, 이들 연구들은 주로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양극화 현상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명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양극화와 계층인식 심화의 주요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선행연구들 중 문화적 요인과 양극화 및 계층 인식 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우며, 문화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인식 심화 현상과 객관적 계층위치 대비 주관적 계층인식의 악화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문화적 요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확장하여 양극화를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로 대별해 살펴봄으로써 양극화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를 시도하며, 이를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양극화 인식, 계층격차 인식, 문화의 역할, 사회통합정책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수정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질적 개선을 위해 도움의 말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 사회정책, 문화정책 등이다(yoonklee@yonsei.ac.kr).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및 계층심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에 양극화가 나타나고 심화되면 사회계층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사회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유형의 양극화 가운데에서도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 간 갈등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회양극화와 소득 및 소비와 같은 경제력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한겨레, 2015; 헤럴드경제, 2015).

왜 양극화와 계층격차 심화가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을까? 양극화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반영하는 개념으로서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수많은 학문분과에서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양극화 극복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와 정책 활동은 객관적 양극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객관적 지표를 통해 근거기반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빈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주관적 인식이다. 시사IN과 미디어리서치가 2015년 2월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9%가 중간 이하 계층에, 56.9%는 중간 미만의 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함으로써 객관적 소득 수준이 상층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는 중간 이하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시사IN, 2015). 또한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한 것에 비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하는 양상도 지적된 바 있다(한국경제,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객관적인 지표와 양극화 및 귀속계층에 대한 인식 간 차이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인식을 심화시키고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인식 간 격차를 유발하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양극화 및 계층격차 인식에 대한 문화적 요인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양극화와 계층 인식 심화의 주요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 시도해왔는데, 대체로 소득 및 자산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나 사회자본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문화는 약화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고, 사회 또는 하위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 장애와 부작용을 해소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주효진·장봉진,

2019). 또한 문화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 및 소외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를 통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Bryson, 1996; Nice, 2002; 박신의, 2013; 서우석, 2015; 양현미 외, 2007). 특히 기본적인 욕구가 이미 충족된 사회의 경우, 사회문화적 관계나 자아실현 등의 2차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오윤경 외, 2012). 문화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의 문화접근과 참여가 문화적·사회적 격차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공지원이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극화 및 계층격차 인식 완화에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문화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상세히 논의하기 위해 집단을 구분해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주요 영향요인으로 강조되어 온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문화적 요인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정부의 사회통합정책과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왜 양극화인가?

인류의 역사는 바로 사회 정의를 탐구하는 과정이었다는 Frankena(1962)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그동안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많은 학자들이 사회 정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사회 정의를 저해하는 요소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성 및 불평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은 여전하며, 특히 한국에서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양극화의 심화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에 대한 담론을 처음 제기하였으며,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정사회' 및 '비정상의 정상화'를,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국정과제로 설정하며 정의로운 국가를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는 정부가 공공정책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계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양극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양극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담론 중 하나이다.

1) 양극화의 개념

양극화(polarization)는 일반적으로 중간층이 사라진 대신 상하 양극단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으로서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나타내는 척도이다(김문조, 2008: 47; 손준중, 2006: 31-32). 이와 관련하여 Esteban & Ray(1994)와 Wolfson(1994) 등의 해외 학자들은 양극화를 “어떤 분포에서 두 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형성되는 일련의 집중 현상” 또는 “중간 부분이 소멸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양극화라는 용어를 소득불평등이나 빈익빈 부익부 등의 개념과 연계하여 상위소득 계층과 하위소득계층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제양극화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강신욱, 2008; 김수현, 2013: 10; 류상영, 1999; 유경준, 2007).¹⁾

그러나 양극화는 단순히 소득이나 부의 경제적 불평등 뿐 아니라 진보와 보수 사이의 대립, 생활양식의 분화, 중산층 내부 구성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주관적 계층 소속의식 변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현상으로서 사회의 다차원적인 분열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성근, 2014; 유경준, 2007; 장미혜, 2006).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요소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경제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그 현상과 원인에 집중해왔다면(Mogues & Carter, 2005; Sen, 1992; Therborn, 2006), 최근에는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집단 간 격차 확대 외에도 집락화된 집단 간 갈등 현상에 주목하게 되면서 양극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양극화 현상을 연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Esteban & Ray, 1994; Esteban & Schneider, 2008; Wolfson, 1994; 김원식, 2013; 신광영, 2005).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에서 서로 이질적인 집단 간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가 다차원적으로 분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양극화 심화 현상이 다른 집단에 대한 반감과 저항감을 유발하여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양극화를 세분화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1) 이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과학적·학술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 의해 양극화의 개념이 도입되어 정책 전면에 부상하게 됨에 따라 정치적 논쟁으로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2)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

앞서 양극화의 개념 정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극화라는 개념이 경제 영역에서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 양극화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경제적 양극화에 국한된 접근과 이를 통해 도출된 대책은 양극화 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병준, 2010; 주은선, 2009). 양극화가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분야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정치, 소비 등의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양극화의 의미와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양극화, 경제양극화, 산업양극화, 기업양극화, 고용양극화, 소득양극화, 교육양극화, 정치양극화 등의 다양한 양극화로 구체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원식, 2013; 박정수, 2011: 45).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양극화 중에서도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양극화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사회집단들 내부에서 동일화·동질화가 이루어짐과 더불어 집단 간의 위화감이 증폭되면서 집단들 간의 격차와 갈등이 확대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김호기, 2006; 노순규, 2010). 사회양극화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사회양극화를 노동시장의 구조나 직업 종사상 지위의 차이(Autor et al., 2006; Goos et al., 2009; Tai, 2010; 신광영, 2005; 정재각, 2006), 주거와 소비의 양극화(Williams & Windebank, 1995; 궁선영·송시형, 2006), 지역 간 양극화(Magrini, 1999), 교육격차(남인숙, 2011; 송호근, 2006)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한편, 장미혜(2006)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유층과 서민층 간 격차 확대,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치적 이념 격차 확대, 생활양식의 분화 등이 사회양극화를 구성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사회양극화를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간 격차, 계층상에서의 부유층과 서민층 간 격차, 지리상에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정치적 이념상에서의 진보와 보수 간 격차 등의 확대로 인한 갈등의 심화 현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양극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증대되고 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 또는 “경제 변수의 분포가 양 극단으로 발산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강신욱, 2008; 하준경, 2006). 앞서 살펴본 사회양극화에 비해 경제양극화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양극화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경제양극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함에

있어 이견의 여지없이 일련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경제양극화를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지표의 분포가 양 극단으로 발산하여 계층 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한국 사회의 객관적·주관적 양극화

양극화를 살펴봄에 있어 객관적인 실제 현황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으로 대별해 접근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 사회의 객관적인 경제양극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적인 경제양극화 관련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도록 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분배지표의 연도별 추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전체 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연도별 추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니계수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0.302
소득5분위배율	5.38	5.60	5.71	5.75	5.66	5.73	5.54	5.43
상대적 빈곤율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4.6

자료: 통계청 자료 재구성.

일반적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면서 주관적 양극화 인식이 심화되기 쉽다. 이상의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로 소득분배지표에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문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이다(매일경제, 2014; 장미혜 외, 2009: 25; 한국경제, 2013). 즉, 객관적 양극화 수준과 사회구성원 개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양극화 현상 간 괴리가 있는 것이다(장미혜, 2006: 63).²⁾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양극화 심화 현상

2) 이러한 괴리는 행동경제학에서의 준거의존성(reference dependence)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 문화 등의 모종의 사회성으로 인해 자신의 보유자산 절대액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유자산과 비교를 통해 준거가 형성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를 통해 개인마다 달리 상대적 준거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nstein, 2001: 268). 즉, 어떤 가치나 현상을 측정하고 인식함에 있어 절대적 수준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요소에 의해 그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객

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소외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극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연구를 수행해온 기존 선행 연구들과 그 맥락을 달리하여 개인이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여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주관적 측면에서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2. 계층격차 인식

통상적으로 계층은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이나 자산, 사회적 측면에서 지위나 교육수준, 직업 등의 객관적 지표에 의해 측정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객관적 계층 수준 외에 자신의 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개인의 심리적·감정적 부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인식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주관적 계층인식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Centers, 1949; Jackman & Jackman, 1973; Veenhoven, 2002; 김병조, 2000; 조동기, 2006). 이러한 주관적 계층인식을 Centers(1949)는 계층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느끼는 개인의 심리적 현상으로 정의하였으며, Vanneman(1980)은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계층연구에서 한 사회의 객관적인 계층구조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개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나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Jackman & Jackman, 1973; 금현섭·백승주, 2011; 김병조, 2000; 송한나 외, 2013; 조동기, 2006). 2000년대 이후 실시된 여러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층 수준을 실제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구성원들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강원택 외, 2014: 128-129). 이에 송한나 외(2013)는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모든 계층에 걸쳐 객관적 계층 수준과 주관적 계층인식 간에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격차 인식을 사회경제적 지위나 생산관계에서의 위치로서의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판단한 계층인식 간 거리의 정도로서 정의

관적 양극화 현황과 주관적 양극화 인식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Norino, 2006: 107-109).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Frey & Stutzer(2002)는 인간은 남들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소득이 함께 증가하거나 더 크게 증가한다면 만족감은 커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고 계층격차 인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3. 양극화 및 계층격차 인식에 대한 문화의 역할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에 대한 연구는 1993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호주와 미국에서 문화예술의 장기적인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박신의, 2013: 58). 문화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정부의 문화정책이 증거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즉, 문화예술의 긍정적인 영향이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문화정책)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활용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이 건강과 교육, 범죄 감소, 커뮤니티 강화, 경제 및 국가의 웰빙에 기여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강조하였다(Arts Council of England, 2002).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의 기본 시각은 그동안 경제가 보여주지 못했던 개인과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외부효과를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화는 사람들의 긍정적 감정을 높여 무력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며(Reeves, 2002; 서우석, 2015: 271), 쾌적성(amenities)을 충족시킴으로써 주관적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양극화나 범죄와 같은 사회적 병리나 부조리 현상을 순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Belfiore & Bennett, 2007). 또한 문화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를 통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Bryson, 1996; DCMS, 1999; 박신의, 2013; 서우석, 2015; 양현미 외, 2007; 이홍재, 2013; 최종혁 외, 2010). 특히, Nice(2002)는 문화가 국민 정체성 상실이나 소외 현상, 범죄, 가치관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호영·서우석(2011)은 문화예술교육 및 소비활동의 기회에서의 배제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사회통합에 대한 문화의 긍정적 효과를 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승호·정의준(2013)은 '문화의 빈곤극복 모델'을 제시하면서 문화가 자기결정성을 높이고 행복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기본적인 욕구가 이미 충족된 사회의 경우, 사회문화적 관계나 자아실현과 같은 2차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오윤경 외, 2012). 한편, 문화사회학의 관점에서는 문화 차원에서의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됨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Bourdieu, 1979; DiMaggio & Useem, 1978). 동일한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구성원끼리는 동일시·결속화하는 반면, 그 외의 집단에 대해서는 배제·배척이 이루어지면서 집단 간 계층화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불평등 구조

가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문화가 집단 내 동질성을 강화하고 집단 간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 행복 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문화와 같은 탈물질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와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문화와 삶의 질 및 행복 등의 주관적 안녕 간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Michalos, 2005). 특히 문화자본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Bowling & Gabriel, 2004; Coalter, 2001; Matarasso, 1997; Michalos & Zumbo, 2003; Silverstein & Parker, 2002; Staricoff, 2004; 김서용·김혜선, 2007; 변미리, 2014; 윤인진·김상돈, 2008; 임영규, 2009; 정무성·김은아, 2013)가 2000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문화가 불평등 및 양극화 인식, 그리고 계층격차 인식과 같은 부정적 사회현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문화가 현재 한국 사회의 양극화 인식 및 계층격차 인식 심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화의 부족은 정서적 문맹(emotional literacy)을 야기하게 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한국경제, 2014). 결국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갈등과 심화된 양극화, 저하된 삶의 질 등의 문제에 대한 처방책으로서 문화가 갈등 완화제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공감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조(2008: 150-152) 또한 문화를 통한 의식적 양극화 극복이 사회구성원 간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여 중국에는 양극화 심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문화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득재분배와 문화정체성 형성, 나아가 사회통합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무성·김은아, 2013; 현택수, 2006; 현택수 외, 2008).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점에서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 인식, 계층격차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문화에 주목하고, 문화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삶의 태도와 사회의식, 그리고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해온 조사로서(문화체육관광부, 2013b), 1996년 이후 2001년,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 2019년에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³⁾

2013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79세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사 지역은 전국 16개 광역시 및 도이다. 표본추출은 지역별 다단계추출로서 국가기초구역의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성별 및 연령별 인구 밀도/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을 통해 2,537명으로 구성된 표본을 구축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3-6).⁴⁾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객관적인 문화생활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지역별 문화예술인프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자료와 결합하였다.

2. 변수 구성

1) 종속변수

(1) 사회양극화 인식

사회양극화란 개념이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양극화를 의미하다보니 이를 연구함에 있어 과연 무엇으로 사회양극화를 봐야 할지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Tai, 2010: 743). 이에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양극화를 매우 다양한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검증된 사회양극화의 척도들을 포괄하여 복합측정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양극화를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간 격차, 계층상에서의 부유층과 서민층 간 격차, 지리상에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정치적 이념상에서의 진보와 보수 간 격차 등의 확대에 인한 갈등의 심화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들 각 지표를 포괄한 복합측정지표로 사회양극화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간 격차로 기업가 집단과 근로자 집단 간 갈등의 크기, 계층상에서 부유층과 서민층 간 갈등의 크기,

3)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자료는 2019년까지 생산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문화의 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화여가활동 만족도와 문화생활여건 만족도 항목이 2013년 자료까지만 있었기에 2013년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원 표본 수는 2,537명이지만, 사회적 고립도 및 주택임대 변수를 구성하면서 기타 값을 보인 샘플을 제외함에 따라 실제 분석한 표본 수는 2,488명이다.

지리상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의 크기, 그리고 정치적 이념상에서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의 크기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설문문항들을 공통의 요인으로 분류해 단일 차원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1='아주 작다', 2='작은 편이다', 3='큰 편이다', 4='아주 크다'로 이루어져 있다.

(2) 경제양극화 인식

경제양극화는 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 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강신욱, 2008; 하준경, 2006).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경제양극화를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지표의 분포가 양 극단으로 발산하여 계층 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분석 자료에서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1='매우 심각하다', 2='심각한 편이다', 3='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4='전혀 심각하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양극화 인식 측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 코딩(reverse coding)을 실시하였다.

(3) 계층격차 인식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계층격차 인식은 개인의 객관적 계층 수준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 수준 사이의 격차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산층에 대한 OECD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즉, OECD에서는 중산층을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소득($\frac{\text{소득}}{\sqrt{\text{가구원수}}}$)으로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하는 계층으로 정의하였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 중산층의 소득범위는 1인당 96-289만원이었다(최성근, 2015; 통계청,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가구소득을 활용해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소득을 산출하고 중산층의 1인당 소득범위에 포함되는지,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인지에 따라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객관적 계층위치를 구분하였다. 또한 주관적 계층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본인 가정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중산층이다", "중산층보다 높다", "중산층보다 낮다"로 주관적 계층인식을 구분하였다. 이후 각각 산출된 값을 대응시켜 차감했을 때, 본인의 객관적 계층위치보다 주관적 계층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경우(-2), 다소 부정적인 경우(-1), 일치하는 경우(0), 다소 긍정적인 경우(1), 매우 긍정적인 경우(2)로 구분하여 값을 부여하였다.

2. 독립변수: 문화적 요인

문화향수를 연구함에 있어 특성에 따라 개인이 직접 경험하고 향유하는 소프트웨어 측면과 문화향유 환경(시설 및 인프라 등)의 하드웨어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점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 다각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표 2〉 문화에 대한 접근법

		관점	
		객관	주관
특성	소프트웨어	문화여가활동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하드웨어	문화생활여건	문화생활여건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문화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특성을 객관적·주관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의 문화여가활동 및 문화생활여건과 더불어 이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질적 수요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족도는 어떤 경험에 대한 인지적 감정으로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기대와 욕구가 충족되는가에 따라 심리상태가 달라진다(Oliver, 1981). 따라서 서비스나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원 본인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생활여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지표로 사용하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생활여건 외에도 개인이 향유하는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문화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양극화 및 계층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5) 본 연구는 문화적 요인으로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문화생활 향유 여건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문화생활여건으로 지역별 문화예술인프라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석 자료에서 본인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문항과 현재 거주 지역의 문화생활 여건을 묻는 설문문항을 사용한다.

한편, 문화생활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 거주 지역의 문화예술인프라 수준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16개 시도별 거주지역의 2013년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수를 파악하였다. 해당 문화시설에는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이 포함

5) 분석 자료의 한계로 객관적인 문화여가활동 수준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된다.

3. 통제변수

문화적 요인이 사회양극화 및 경제양극화의 인식, 그리고 계층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양극화 인식 및 계층격차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배경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사회적 배제를 생성하고 기존의 경제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Mogues & Carter, 2005; 장미혜 외, 2009), 성별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접근, 경제활동 수준, 임금 수준, 소득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Sutcliffe, 2001). 또한 주택과 같은 자산의 유무가 경제적 불평등을, 교육 수준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송호근, 2006). 한편, 계층격차 인식에 대해서는 Jackman & Jackman (1973)이 미국 사회에서 직업, 소득, 교육의 순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연구가 국내 연구들에서도 수행되었지만 변수별로 영향력을 미치는 순서는 일관되지 않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계층인식에 소득, 교육, 직업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병조, 2000; 서광민, 2009; 장상수, 1996)과 교육, 소득, 직업의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Yoon & Seok, 1996)를 들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는 소득이나 교육, 직업 등의 객관적 요인 외에 개인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했다(Lundberg & Kristenson, 2008; 서광민, 2009; 조동기, 2006).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양극화 인식 및 계층격차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밝혀진 경제적 요인들과 사회적 요인들, 사회복지 수준, 그리고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포함한 경제적 요인은 월평균 가구소득(Greenberg, 1987; 백병부김경근, 2007), 가계부채 부담(장미혜, 2006), 가정경제 만족도(Dillard, 1987)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가계부채 부담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1='전혀 없다', 2='약간 있으나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 3='부담을 줄 정도로 많다'로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가정경제 만족도는 본인의 가정경제에 대해 1='매우 불만족한다'에서 10='매우 만족한다'로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요인은 사회신뢰(Mogues & Carter, 2005), 네트워크 민주성(Light, 2004; 이정규, 2009), 사회적 고립도(Vidal,

2004; 김혜연, 2011), 그리고 사회복지 수준(Zimmerman, 2000; 정선영·정익중, 2011)이다. 사회적 요인(사회자본)은 개인 차원에서 사회신뢰로, 집단 차원에서 네트워크로 대별해 살펴보았다. 사회신뢰 변수는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인지 질문하는 설문문항(리커트 10점 척도)을 사용하였다. 사회 구성 집단 간 사회적 관계(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해 기업가와 근로자 간, 교사와 학생 간, 공무원과 시민 간,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관계의 권위성 정도를 묻는 설문문항들을 하나의 복합지표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변수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를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를 구성해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수준은 한국의 경제수준 대비 사회복지 수준을 묻는 설문문항(리커트 4점 척도)을 사용하였으며,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역 코딩(reverse coding)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배경으로는 성별(여성), 연령(절대값),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주택 유형(소유/임대), 거주지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 직업, 이념 성향(진보성향, 리커트 5점 척도)을 포함하였다.

각 변수를 구성하는 설문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	설문문항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 양극화 인식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2.84	0.586	1	4
	기업가와 근로자	3.05	0.616	1	4
	부유층과 서민층	3.25	0.656	1	4
	수도권과 지방	2.82	0.704	1	4
	진보와 보수	3.15	0.702	1	4
	경제양극화 인식	3.03	0.604	1	4
	계층격차 인식	0.73	0.766	-2	2
문화적 요인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2.38	0.724	1	4
	문화생활여건 만족도	2.42	0.720	1	4
	문화예술인프라	0.45	0.271	0.22	1.79
경제적 요인	월평균 가구소득	6.28	2.278	1	10
	가계부채 부담	1.61	0.676	1	3
	가정경제 만족도	5.98	1.894	1	10

변수	설문문항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적 요인	사회신뢰	5.63	1.752	1	10
	네트워크 민주성: 기업가와 근로자	2.05	0.631	1	4
	네트워크 민주성: 교사와 학생	2.42	0.641	1	4
	네트워크 민주성: 공무원과 시민	2.34	0.661	1	4
	네트워크 민주성: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2.06	0.607	1	4
	네트워크 민주성: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2.25	0.594	1	4
	사회적 고립도(고립X=0 / 고립=1)	0.17	0.375	0	1
사회복지 수준		2.28	0.635	1	4
인구 통계학적 배경	성별(남성=0 / 여성=1)	0.50	0.500	0	1
	연령	44.97	15.462	19	79
	교육수준	2.69	1.213	1	5
	배우자 유무(없음=0 / 있음=1)	0.69	0.463	0	1
	거주주택임대 여부 (소유=0 / 임대=1)	0.26	0.438	0	1
	거주지역 규모(대-소)	1.63	0.625	1	3
	직업군: 전문직/관리직	0.35	0.183	0	1
	직업군: 준전문직/사무직	0.17	0.373	0	1
	직업군: 판매직/서비스직	0.27	0.443	0	1
	직업군: 생산직/농어민	0.16	0.364	0	1
	직업군: 미취업	0.37	0.484	0	1
이념 성향 (진보)	2.89	0.874	1	5	

IV. 분석 결과

1.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 검토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양극화 인식, 경제양극화 인식, 그리고 계층격차 인식에 문화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전체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사회양극화 인식	경제양극화 인식	계층격차 인식
독립 변수	문화적 요인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0.042**	0.003	-0.047**
		문화생활여건 만족도	-0.037*	0.044**	-0.005
		문화예술인프라	0.001	-0.093***	-0.062***
통제 변수	경제적 요인	월평균 가구소득	-0.008	-0.008	0.635***
		가계부채 부담	0.069***	0.075***	0.071***
		가정경제 만족도	0.021	0.018	-0.203***
	사회적 요인	사회신뢰	-0.153***	-0.097***	-0.010
		네트워크 민주성	-0.242***	-0.128***	-0.032*
		사회적 고립도	0.020	0.002	-0.003
	사회복지 수준		-0.095***	-0.058***	-0.033*
	인구 통계학적 배경	성별(여성)	0.003	-0.025	0.006
		연령	0.082***	0.045	0.071***
		교육수준	0.042	0.050*	-0.029
배우자(有)		-0.045**	-0.016	-0.065***	
거주주택(임대)		-0.005	0.025	0.061***	
거주지 규모(小)		0.034	0.023	0.026	
전문직/관리직		0.025	-0.007	-0.036**	
판매직/서비스직		0.021	-0.030	-0.049**	
생산직/농어민		0.029	-0.009	-0.052**	
미취업		0.025	-0.013	-0.132***	
이념 성향(진보)		-0.043**	-0.034*	-0.001	
R ²			0.143	0.061	0.361
Adjusted R ²			0.136	0.053	0.355
F			19.594***	7.670***	66.311***
N			2,488	2,488	2,488

주1: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주2: 각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표준화계수 β 값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독립변수인 문화적 요인들은 세 종속변수에 대해 각각의 영향력을 보였다. 첫째, 사회양극화 인식에 대해서는 문화여가활동 및 문화생활여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 때 양극화 인식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양극화 인식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프라가 많을수록 양극화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중에서는 문화생활여건 만족도만이 양

극화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층격차 인식에 대해서는 문화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문화예술인프라가 많을수록 객관적 계층위치에 비해 주관적 계층인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독립변수인 문화여가활동 만족도의 경우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양극화 인식이 감소하고 객관적 계층위치에 비해 주관적 계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인이 향유하는 문화여가활동에 만족할수록 사회집단 간 갈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귀속감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여가를 즐기는 삶이 행복한 삶의 기준 또는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권상화·홍종배, 2009: 65). 문화여가생활은 노동과 같은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즐기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활동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문화여가활동은 향유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부여하고 긍정적 감정을 증대시킴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배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Bryson, 1996; DCMS, 1999; Reeves, 2002; 박신의, 2013; 서우석, 2015; 양현미 외, 2007; 이흥재, 2013; 최종혁 외, 2010). 따라서 자신의 문화여가활동에 만족할 경우 향유자는 문화에 대한 자신의 본질적·근원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되고, 정서적 안정을 통해 타인과의 비교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적게 인식하고 중국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활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작동기제에 따라 문화여가활동 만족도가 사회양극화 인식과 계층격차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독립변수인 문화생활여건 만족도는 문화 향유자가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각종 문화예술시설 등의 문화생활여건에 대해 가지는 만족도로서 사회양극화 인식을 감소시키는 반면, 경제양극화에 대한 인식은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도 등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생활여건에 만족할수록 사회양극화를 적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문화여가생활을 향유함에 있어 관련 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자신을 둘러싼 문화생활여건에 만족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백병준(2006)은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고 이용자들이 만족할 때 문화활동의 빈도가 증가함을 밝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시설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광역 또는 시군 단위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을 접하고 관련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신두섭·박승규, 2012: 143). 따라서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함에 있어 문화생활여건이 질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다면

사람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공감대가 높아지고 타인과의 교류가 활성화 되어 사회적 관계를 개선함에 따라 사회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문화생활여건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양극화 인식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사회양극화 인식에 대한 영향력과 정반대라는 점에서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양극화 인식은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경제적 상황, 즉 소득계층과 연관이 깊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실제 계층을 중산층 이하와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계층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경제양극화 인식에 대한 객관적 계층별 영향력 비교

구분	변수	경제양극화 인식		
		중산층 이하	중산층	중산층 이상
독립 변수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0.077	0.033	0.012
	문화생활여건 만족도	0.105*	0.037	0.028
	문화예술인프라	-0.063	-0.150***	-0.038
통제 변수	월평균 가구소득	-0.011	-0.077**	0.042
	가계부채 부담	0.097	0.091***	0.056*
	가정경제 만족도	0.027	-0.022	0.032
	사회신뢰	-0.143**	-0.067**	-0.105***
	네트워크 민주성	-0.168***	-0.059*	-0.180***
	사회적 고립도	0.028	0.009	-0.023
	사회복지 수준	0.096*	-0.079**	-0.106***
	성별(여성)	0.091*	-0.071**	-0.033
	연령	0.048	0.000	0.069*
	교육수준	0.097	0.084**	-0.007
	배우자(有)	0.019	0.065*	-0.062*
	거주주택(임대)	0.049	-0.026	0.081***
	거주지 규모(小)	0.060	0.047	-0.017
	전문직/관리직	0.044	-0.003	-0.030
	판매직/서비스직	0.012	0.063	-0.091**
	생산직/농어민	0.002	0.056	-0.023
	미취업	0.012	0.075	-0.028
	이념 성향(진보)	-0.071	-0.028	-0.023

구분	변수	경제양극화 인식		
		중산층 이하	중산층	중산층 이상
	R ²	0.105	0.069	0.096
	Adjusted R ²	0.054	0.049	0.078
	F	2.040***	3.483***	5.387***
	N	386	1,010	1,092

주1: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주2: 각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표준화계수 β 값임.

또한 본 연구는 자신의 계층을 실제 계층 위치보다 높게 인식하는 집단과 낮게 인식하는 집단, 그리고 동일하게 인식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래의 <표 6>과 같이 각 계층인식 집단을 구분하여 동일한 회귀모형을 비교해 분석하였다.

<표 6> 경제양극화 인식에 대한 계층격차 인식 집단별 영향력 비교

구분	변수	경제양극화 인식		
		부정적 계층인식	긍정적 계층인식	동일한 계층인식
독립 변수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0.028	0.048	-0.059
	문화생활여건 만족도	0.026	0.109	0.071*
	문화예술인프라	-0.080***	-0.210**	-0.055
통제 변수	월평균 가구소득	0.024	-0.229**	-0.042
	가계부채 부담	0.073***	-0.059	0.102**
	가정경제 만족도	0.011	0.200**	-0.025
	사회신뢰	-0.100***	-0.191**	-0.075*
	네트워크 민주성	-0.140***	-0.135	-0.108***
	사회적 고립도	-0.010	0.122	0.001
	사회복지 수준	-0.074***	-0.075	-0.015
	성별(여성)	-0.061**	0.073	0.023
	연령	0.045	0.093	-0.018
	교육수준	0.030	0.024	0.092*
	배우자(有)	-0.016	0.173	-0.019
	거주주택(임대)	0.053**	0.069	-0.026
	거주지 규모(小)	0.000	0.040	0.036
	전문직/관리직	0.028	-	0.009

구분	변수	경제양극화 인식		
		부정적 계층인식	긍정적 계층인식	동일한 계층인식
	판매직/서비스직	-0.014	-	0.005
	생산직/농어민	0.010	-	0.029
	미취업	0.032	-	-0.017
	이념 성향(진보)	-0.025	-0.083	-0.033
	R ²	0.071	0.251	0.059
	Adjusted R ²	0.063	0.133	0.031
	F	6.023***	2.124**	2.136***
	N	1,621	126	741

주1: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주2: 각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표준화계수 β 값임.

주3: 긍정적 계층인식 집단의 경우 해당자의 수가 적어 직업군 구분에 있어 통계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모형에서 직업 관련 변수를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함.

이상과 같이 <표 5>와 <표 6>을 통해 앞서 살펴본 전체 분석 결과에서 문화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양극화 수준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객관적으로 중산층 이하인 집단과 실제 계층 위치와 주관적인 계층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인의 계층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집단에서 중산층 이하는 324명, 중산층은 355명으로 표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여가생활에 있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타일 지향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며 남과의 차별화를 중시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절약을 지향하며 실용적인 성향을 보인다(문숙재, 2000: 50-51). 특히 중산층의 경우 문화여가생활에 있어 상승욕구 또는 상층 모방의 성향을 띠는 동시에 하층과 구별하려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이들은 대체로 일정수준 이상 고급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일반적으로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은 대중적이기보다는 고급화되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가장 대중적인 문화시설인 영화관과 비교해볼 때, 뮤지컬/오페라 공연장이나 콘서트장/음회장과 같은 시설들의 경우 좌석 등급별로 요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문화예술시설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수는 있지만 이용 과정에서 경제적 격차를 실감함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를 보다 심화하여 인식할 수 있다.

한편, 두 결과는 공통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집단에서 문화생활여건 만족도가 경제양극화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화여가생활은 노동 이후 육체

적·정신적 피곤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자기실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Dumazedier, 1974; 김문점, 1993), 문화여가의 영역은 노동과 거리를 유지하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과 노동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 간 차이가 뚜렷하다(함인희 외, 2001: 133). 즉,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계층에서는 물질적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문화여가의 영역에서 자기개발 및 자아실현을 추구하지만, 중산층 이하의 계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화여가 영역에서 소외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정부는 문화복지정책을 통해 국민 전체, 특히 소외계층의 문화향수를 보장하고자 많은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중산층 이하 계층은 정책의 대상자로서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 수준 향상되었으며, 문화바우처 제공 등으로 문화향수를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 받았다. 그럼에도 문화예술 시설 자체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문숙재, 2000: 128) 오히려 경제적 격차 및 소외 현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경제양극화 인식이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독립변수인 문화예술인프라의 경우 경제양극화 인식을 완화하고, 객관적 계층위치에 비해 주관적 계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인프라가 많을수록 경제양극화를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호영·서우석(2010)이 제시한 문화적 박탈(cultural deprivation)의 개념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적 박탈의 원인은 “개인이 문화생활을 누리려는 욕구가 있어도 외부의 조건들 때문에 이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객관적 요인(경제적, 지리적, 물리적, 사회적 요인)과 “문화생활 자체에 대한 욕구나 문화예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해득력이 부족해 충분한 문화적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 주관적 요인(문화적,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박탈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지역의 문화예술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준홍·홍성호, 2014). IMF 외환위기로 인해 중산층 붕괴와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의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그에 따라 계층 간 문화향유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서보람 외, 2011), 김대중 정부에서는 박물관, 도서관, 문화의 집 등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자원봉사자 육성, 문화소외계층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문화의 민주화를 위해 문화바우처 정책을 도입하여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제시하며 국민의 문화 기회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며 문화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생활문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정부에서 문화를 통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문화복지에 중점을 두어 문화정책을 추진해오며 따라 문화예술인프라 구축 정도가 경제양극화 및 계층격차 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2. 통제변수들의 영향력 검토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서 포함한 경제적 요인들과 사회적 요인들, 사회복지 수준,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배경이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서 가계부채 부담은 사회양극화 및 경제양극화 인식, 그리고 계층격차 인식에 공통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부채부담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의 증가에 주목한다. 실제로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2015년 1/4분기 가구소득 증가율이 3.6%인 반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7.3%로 가구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8.1%에 달한다(고가영, 2015). Brown et al.(2005)은 주택 구입 등의 모기지 대출에 의한 스트레스보다 일반 소비를 위한 신용대출이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주택 구입을 위한 부채의 경우 부채상환 시 자산이 증식되지만, 소비에 의한 부채의 경우 부채 상환 시 자산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즉, 가구마다 부채의 유형에 따라 가지는 부담감이 다르며, 가계부채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가구원일수록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는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보이게 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사회집단에 대한 의문이나 준거 집단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가계부채 부담이 클수록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를 크게 인식하고 객관적 계층위치에 비해 주관적 계층을 낮게 인식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인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사회적 요인에서 네트워크 민주성 변수가 사회양극화 및 경제양극화 인식, 그리고 계층격차 인식에 공통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네트워크 민주성은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

는데, 이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권위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을수록 하위계층에 불리한 반호혜주의적 규범이 사회적으로 배태되고 신뢰나 사회적 협력의 형성이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와 연관되는 바가 크다(Barber, 1984; Inglehart, 1999; Paxton, 2002; Putnam, 1993). 한편, 사회신뢰 또한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 인식 심화를 낮추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는데, 이는 사회신뢰가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Bjørnskov, 2003; Helliwell, 2003; Kawachi et al., 1997; Uslaner, 2002).

양극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사회적 요인이라면 계층격차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적 요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층격차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평균 가구소득으로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객관적인 계층위치에 비해 자신의 소속 계층을 낮게 인식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주관적 계층인식을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 객관적인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계층을 객관적 계층 위치에 비해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서광민, 2009; 송한나 외, 2013),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객관적 계층위치에 비해 주관적 계층인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만족도 또는 소득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위치를 실제 계층보다 높게 인식한다는 송한나 외(2013)와 서광민(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특히 소득 등의 객관적 지표 외에 주관적 만족도와 같은 지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서광민(2009)의 지적에서처럼 본 연구에서 가정경제 만족도가 계층격차 인식을 긍정적으로 완화하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통제변수들의 각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해 정리해보면, 사회양극화 및 경제양극화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요인으로, 계층격차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적 요인으로 대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 인식이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 문화 등의 모종의 사회성으로 사회적 비교를 통해 형성되는 반면, 계층격차 인식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생산관계에서의 위치와 이에 대한 주관적 인지 간의 격차로서 기본적으로 직업이나 소득, 재산 등의 경제 관련 지표를 준거로 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각 종속변수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의 영향력에 살펴보도록 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양극화를 크게 인식하고 객관적 계층위치에 비해 주관적 계층인식

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와 직결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노년층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는 은퇴하고 노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이전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 뒷바라지 등의 문제로 노후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노인 빈곤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양극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현재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의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6%로서 OECD 평균 39%에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4년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58.6%에 그치는 등 노동시장에서 고등교육 이수자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정책뉴스, 2015). 즉,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이 개인의 경제적 지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이수자들 중심의 직업군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최근의 한국 상황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양극화 인식을 크게 인식하도록 하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객관적 계층위치에 비해 주관적 계층인식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 소유가 “사회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문화적 수준을 나타내는 표상”인 동시에(Bourdieu, 1979), “생활기회(life chance)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소비 자산”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장세훈, 2007). 이러한 주택의 특성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회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Cooper, 1976; Hamnett, 1995; 문숙재 외, 2000: 47; 장세훈, 2007: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장세훈(2007)은 주택의 소유 여부가 계층을 구별 짓는 하나의 잣대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비해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자신의 계층을 높게 인지하기 쉽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와 주관적 계층인식의 악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인식 심화 현상과 객관적 계층위치 대비 주관적 계층인식의 악화 현상에 주목하고 이러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문화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여가활동 만족도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객관적 계층에 비해 주관적 계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이 향유하는 문화활동에 만족할수록 사회양극화와 계층격차를 적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여가활동이 사회적으로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면서 행복의 정도를 결정하는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권상희·홍중배, 2009: 65). 따라서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향유자가 문화를 통해 자신의 본질적·근원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됨으로써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등 정서적으로 안정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이 완화되는 것이다. 한편, 문화생활여건 만족도는 사회양극화 인식은 완화하지만 경제양극화에 대한 인식은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향유자가 문화생활여건에 만족할수록 사회양극화를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생활여건에 대한 질적인 만족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문화를 향유함에 있어 문화생활여건이 질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을 때 문화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며 몰입도와 공감대가 높아지게 된다. 이에 사회양극화와 같은 부정적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생활여건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양극화 인식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양극화 인식에 대한 영향력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객관적 계층 집단과 계층격차 인식 집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공통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집단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문화여가는 계층별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계층의 경우 물질적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문화여가의 영역에서 자기개발 및 자아실현을 추구하기에 용이하지만, 중산층 이하의 계층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화여가 영역에서 소외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정부는 많은 문화예술시설들을 확대하고 문화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서 문화생활여건 만족도가 경제양극화 인식을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문화예술시설 자체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문숙재, 2000: 128). 이에 문화 소외 계층으로서의 중산층 이하 계층이 문화생활여건에는 만족하지만 역설적으로 경제적 격차 및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경제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문화예술인프라와 같은 객관적 문화생활여건 또한 경제양극화 인식을 완화

하고 계층격차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인프라의 구축으로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될 때 국민의 물리적인 문화적 박탈(cultural deprivation)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향유자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준홍·홍성호, 2014). 이와 같은 작동기제 하에 문화예술인프라 구축 정도가 경제양극화 및 계층격차 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양극화 인식 및 계층격차 인식 심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여가활동 만족도와 문화생활여건 만족도, 그리고 문화예술인프라와 같은 문화적 요인들이 대체로 양극화 인식과 계층격차 인식을 완화하는 데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동안 문화정책 중에서도 문화복지 분야를 강화해온 정부의 정책기조에 유의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산층 이하 계층과 같은 문화소외집단의 경우 문화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도 오히려 문화생활에서 경제적 격차를 인지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문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기존의 정책기조에 국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질적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적실성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산층 이하의 문화취약 계층에 대해 경제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보다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함에 있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변수 구성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문화의 개념과 역할에 따라 제한적으로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⁶⁾ Carey(2005)는 사람들이 향유하고 문화예술로서 간주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라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이 경험하고 향유하는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로서 문화의 범위를 한정하고 문화적 요인으로 문화여가활동 및 문화생활여건을 살펴보았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은 양극화 및 계층격차 인식에 대한 문화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지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

6) 본 연구에서 문화의 개념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였지만, 문화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며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정의를 도출해내기란 쉽지 않다(Kroeber & Kluckhohn, 1952; Williams, 1982).

에서 문화적 요인의 통계적 유의성과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 결과에 주목해 해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 참고문헌

- 강신욱. 2008.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원택·김병연·안상훈·이재열·최인철. 2014.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21세기북스.
- 고가영. 2015. “소비성향 더 하락할 가능성 크다.”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17-22.
- 궁선영·송시형. 2006. “사회적 양극화.” 《한국사회학회 2006년 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 217-218.
- 권상희·홍중배. 2009. “세대별 여가문화소비유형과 삶의 만족도 연구.” 《인론정보연구》, 46(1): 63-97.
- 금현섭·백승주. 2011.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동: 사회보험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51-272.
- 김문점. 1993. 《여가의 사회학: 한국의 레저문화》. 한울 아카데미.
- 김문조. 2008. 《한국사회의 양극화: '97년 외환위기와 사회불평등》. 집문당.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4): 241-268.
- 김병조·장원호. 2006. “한국 중산층의 정치의식.”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33-55.
- 김병준. 2010. “소득양극화의 의미: 경제정책적 의미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2): 39-61.
- 김상돈. 2009.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이 국가기관 불신에 미치는 영향: 정부 정책 불신의 매개효과.” 《한국사회학》, 43(2): 25-54.
- 김서용·김혜선. 2007. “문화자본은 중요한가 -문화격차와 주관적 안녕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정책학회 2007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57-177.
- 김성근. 2014. 《국민통합의 과제와 전략: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김수현. 2013. 《문화양극화의 영향요인과 정부지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식. 2013. “한국사회 양극화와 다차원적 정의.” 《사회와 철학》, 26: 223-250.

- 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1-29.
- 김호기. 2006. "중산층과 이중적 시민사회: 중산층의 쇠퇴와 시민사회의 변동." 《한국 사회학회 2006년 중산층 역할과 사회발전 제2차 포럼》, 3-11.
- 남인숙. 2011.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 격차." 《현상과 인식》, 35(3): 15-38.
- 노순규. 2010. 《사회양극화 해결과 복지행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 류상영. 1999.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 《매일경제》. 2014. "국민소득 늘었지만 빈곤층은 더 가난해져."
- 목진휴 외. 2006. 《양극화 현상의 원인 진단과 극복방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문숙재·최혜경·정순희. 2000. 《한국 중산층의 생활문화》. 집문당.
- 문화체육관광부. 2013.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2013》. 자료산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제공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4년. 자료번호: A1-2013-0057.
- 문화체육관광부. 2013b. 《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보고서》.
- 박신의. 2013.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 분석과 정책적 함의." 《문화정책논총》, 27(1): 57-75.
- 박정수. 2011. "거대 문화자본의 형성과 국가: 중국 영화산업의 구조적 양극화." 《중소연구》, 35(1): 43-83.
- 백병부·김경근. 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101-129.
- 백병준. 2006. 《국내 문화시설 이용 실태에 관한 실증 분석: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 별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미리. 2014. "문화소비는 삶의 질을 높이는가? 서울의 사례와 증거들." 《한국행정학회 2014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8.
- 서광민. 2009.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소득교육수준-직업소득-만족도-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논문집》, 911-921.
- 서보람·장하림·현택수. 2011. "문화복지정책 발달사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9: 95-124.
- 서우석. 2015. "문화여가활동이 경제적 빈곤층의 행복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9(1): 266-296.
- 손준중. 2006. "교육 양극화의 개념, 유형, 동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한국교육학연

- 구», 12(2): 31-58.
- 송복(편). 2003. 《사회불평등 기능론: 사회계급과 계층의 전개(I)》. 한국학술정보(주).
- 송한나·이명진·최셋별. 2013. “한국 사회의 객관적 계급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 간 격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6(3): 97-119.
- 《시사IN》. 2015. “세금과 복지 ‘바람’이 보인다.”
- 신광영. 2005. “사회의 양극화: 실증적 연구.” 《한국사회학회 2005년 발표논문집》, 69-76.
- 신두섭·박승규. 2012.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문화경제연구》, 15(3): 139-159.
- 양현미·심광현·박건희. 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윤경·최현선·이은지. 2012. “사회통합을 위한 커뮤니티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3-147.
- 유경준. 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 유승호·정의준. 2013. “빈곤 문제에서 문화의 역할: 문화전략을 통한 빈곤극복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7(1): 77-97.
- 윤인진·김상돈. 2008.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급여가활동의 매개효과분석.” 《도시행정학보》, 21(2): 153-185.
- 이호영·서우석. 2010. “디지털 시대의 문화자본과 불평등.” 《문화정책논총》, 23: 69-95.
- 이호영·서우석. 2011.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5(1): 91-118.
- 이홍재. 2013. “지역 문화정책과 사회적 자본의 통합적 공진화.” 《GRI 연구논총》, 15(2): 213-242.
- 임영규. 2009. “문화적 성향, 여가활동 유형, 생활만족도 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8(1): 263-287.
- 임준홍·홍성효. 2014. “주거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지역을 사례로.” 《주거환경》, 12(2): 137-152.
- 장미혜. 2006. “중산층의 양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2006년 중산층 역할과 사회발전 제3차 포럼》, 57-89.
- 장미혜 외. 2009.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자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상수. 1996. “한국사회에서의 주관적 계층위치.” 《사회와 역사》, 49: 180-212.

- 장세훈. 2007. “주택소유의 관점에 입각한 중산층의 재해석.” 《경제와 사회》, 74: 199-226.
- 정무성·김은아. 2013. “문화복지 참여에 따른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141-159.
- 정선영·정익중. 2011.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 가구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과 경향점수분석의 비교.” 《청소년상담연구》, 19(1): 49-67.
- 정재각. 2006.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 사회정의 관점에서.” 《한독사회과학논총》, 16(2): 77-104.
- 《정책뉴스》. 2015.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능력중심 채용 새 패러다임.”
- 조동기. 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3): 89-109.
- 주은선. 2009.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전개: 복지-노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28: 143-185.
- 주효진·장봉진. 2019. “문화복지” 박광국 (편). 《문화와 국민행복: 문화국가 만들기》. 대영문화사.
- 최성근. 2015.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이슈리포트.
- 최종혁·이연·유영주·안태숙. 20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문화복지실천가 대상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291-316.
- 통계청. 각년도. 《가계동향조사》.
- 하준경. 2006. “한국경제의 양극화 원인과 영향 및 정책과제.” 《사회과학논총》, 8: 483-504.
- 《한겨레》. 2015. “전문가 10명 중 9명 ‘우리사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 《한국경제》. 2013. “양극화? 과장과 착시와 위선.”
- 함인희·이동원·박선웅. 2001.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집문당.
- 《헤럴드경제》. 2015. “서울 시민 관심도 1위 부동산…소득 양극화는 지속될 것.”
- 홍두승. 1983.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 황선대. 2005. “FTA의 세계화 추세: 한미간 문화차이의 실증분석 -홈스테드의 문화차원을 기준으로-.” 《국제지역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53-563.

- Arts Council of England. 2002. *Ambitions for the Arts 2003-2006*. London: Arts Council of England.
- Autor, D., L. Katz, and M. Kearney. 2006. "Measuring and Interpreting Trends in Economic Inequality." *AEA Papers and Proceedings*, 96(2).
- Barber, B. R. 1984. *Strong Democr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jørnskov, C. 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 3-16.
- 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Trans. Nice, R.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S., K. Taylor, and S. W. Price. 2005. "Debt and Distress: Evaluating the Psychological Cost of Credi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6(5): 642-663.
- Bryson, Bethany. 1996. "'Anything but Heavy Metal': Symbolic Exclusion and Musical Dislik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884-899.
- Carey, J. 2005. *What Good are the Arts?* London: Faber and Faber.
- Centers, R. 1949.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alter, F. 2001. *Realising the Potential of Cultural Services: The Case for the Arts. Research Briefing Twelve Point Four*. Londo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Cooper, C. 1976. *The House as a Symbol of Self*. University of Berkeley Working Paper.
- DCMS. 1999. *Policy Action Team 10: Report on Social Exclusion*. London: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Dillard, B. L. 1987. "Household Production as a Determinant of Satisfaction with Economic Circumstances."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Dumazedier, Joffre. 1974. *Sociologie du Loisir: Critique et Contre-critique de la Civilisation du Loisir*. Paris: ditions du Seuil.
- Esteban, Joan-María & Debraj Ray.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4): 819-851.
- Esteban, Joan, & Gerald Schneider. 2008. "Polarization and Conflict:

-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Journal of Peace Research*, 45(2): 131-141.
- Frey, Bruno S. & Alois Stutzer. 2002.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Well-Bei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os, Maarten, Alan Manning, and Anna Salomons. 2009. “Job Polarization in Europ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9(2): 58-63.
- Greenberg, Jerald. 1987. “Reactions to Procedural Injustice in Payment Distributions: Do The Means Justify the End?”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 55-61.
- Hamnett, C. 1995. “Home-ownership and the Middle Classes.” In Butler, Tim & Mike Savage (eds.). *Social Change and the Middle Classes*.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 Helliwell, J. F. 2003.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Economic Modelling*, 20(2): 331-360.
- Hofstede, G. 2011. *Dimensionalizing Cultures: The Hofstede Model in Context*.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 Inglehart, H. 1999.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In Warren, M. E. (ed.).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kman, M. & R. Jackman. 1983. *Class Awareness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wachi, I., B. P. Kennedy, K. Lochner, and D. Prothrow-Stith.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9): 1491-1498.
- Kroeber, A. L. & Clyde Kluckhohn. 1952.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logy*, 47(1): 223.
- Leung, K. & E. A. Lind. 1986. “Procedural Justice and Culture: Effects of Culture, Gender, and Investigator Status on Procedural Pre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134-1140.
- Light, I. 2004. “Social Capital's Unique Accessibility.”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0(2): 145-151.

- Magrini, Stefano. 1999. "The Evolution of Income Disparities among the Regions of the European Unio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9(2): 257-281.
- Matarasso, F. 1997.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Stroud: Comedia.
- Michalos, A. C. & B. D. Zumbo. 2003. "Leisure Activities, Health and the Quality of Life." In Michalos, A. C. 2003. *Essays on the Quality of Life*.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B.V.
- Mogues, Tewodaj & Michael R. Carter. 2005. "Social Capital and the Reproduction of Economic Inequality in Polarized Societies."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3(3): 193-219.
- Nice, H. 2002. *Culture Rights*. UNESCO-Sweden Conference Preparatory Paper.
- Norino, T. 2006. 行動經濟學: 經濟は<<感情>>で動いている. Kobunsha Co., Ltd.
- Oliver, R. L. 1981.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Satisfaction Processes in Retail Settings." *Journal of Retailing*, 5(3): 25-48.
- Paxton, Pamela. 2002.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54-277.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eeves, M. 2002. *Measuring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the Arts: A Review*. London: Arts Council of England.
- Sen, Amartya. 1992.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University Press.
- Silverstein, M. & M. G. Parker. 2002. "Leisure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Oldest Old in Sweden." *Research on Aging*, 24(5): 528-547.
- Staricoff, R. L. 2004. *Arts in Health: A Review of the Medical Literature*. Research Report 36. London: Arts Council England.
- Sunstein, C. 2001. "Human Behavior and the Law of Work." *Virginia Law Review*, 87(2): 205-276.
- Tai, Pofen. 2010. "Beyond 'Social Polarization'? A Test for Asian World Cities in Developmental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4(4): 743-761.

- Therborn, Goran. (ed.). 2006. *Inequality of the World*. London: Verso.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neman, Reeve. 1980. "U.S. and British Perceptions of Cla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4): 769-790.
- Vidal, A. C. 2004. "Building Social Capital to Promote Community Equity."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0(2): 164-168.
- Veenhoven, R. 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33-45.
- Williams, C. & J. Windebank. 1995. "Social Polarization of Households in Contemporary Britain: A 'Whole Economy' Perspective." *Regional Studies*, 29(8): 723-728.
- Williams, Raymond. 1982. *The Sociology of Culture*. New York: Schocken Books.
- Wolfson, Michael C. 1994. "When Inequalities Diverg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353-358.
- Zimmerman, M. A. 2000. "Empowerment Theory: Psychological, Organizational and Community Levels of Analysis." In Rappaport, J. & E. Seidman. (eds.). *Handbook of Community Psychology*. New York: Kluwer Academic.

The Role of Culture on Perceptions of Polarization and Class Gap

Yoonkyung Lee

Recently in the Korean society and world society, the worsening phenomena of polarization and subjective perception of class have been the subjects of concern as a serious social problem. When the phenomenon of polarization is deepening and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class is negatively formed in the society, discomfort among social classes is fueled and will untimely hinder social integration. Though many studies on polarization have been conducted, they have been limited to illuminating polarization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considering it as a structurally formed phenomenon in the society.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reveal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of the worsening phenomena of polarization and class. However, studies that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factors and them are relatively difficult to find and discussions on the role of cultural factors have been insufficient. With the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s of the deepening phenomenon of perception of the polarization and the worsening phenomenon of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class against the objective class level in Korean society, and empirically elucidates the effects of the cultural factors as an alternative to mitigating them. This study classifies polarization in social and economic terms, and extends the discussion of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mainly on economic and objective polarization. This study has the distinction in that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the polarization is attempted, an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erceptions of society members is conducted.

※ Key Words: perception of the polarization, perception of the class gap, role of culture, social integration policy